

서호인의 '소설처럼'



어떤 비관 -안녕달 『눈, 물』

어떤 상실은 운명이다. 우리는 대체로 정해진 운명을 따르되, 그 따름의 과정을 애써 있고 산다. 죽음이 특히 그렇다. 모두가 언젠가는 죽겠지만 죽음의 공포에 질려 일상을 해칠 수는 없다. 죽음보다는 삶에 집중하는 게 현명하다. 거대한 상실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애도가 전부이고, 애도의 기간이 끝나면 다시 삶으로 돌아와야 한다. 제대로 애도할 수 없다면, 되돌아올 삶에 죽음은 영향을 미친다. 상실의 불안이 우리를 잠식하고 지배하는 것이다. 제대로 잊기 위해서는 무결에 가까운 애도가 필요하다. 실컷 울어도 좋고, 마음껏 추억해도 좋다. 울음과 추억 속에 상실된 그것을 향해 최선을 다했던 시간이 드러날 것이기에.

안녕달 그림책 『눈, 물』은 예정된 상실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인간의 이야기이자, 어른을 위한 환상동화다. 어느 날 한 여자는 '눈아이'를 낳았다. 아이는 그야말로 눈(雪)—아이이기 때문에 온기가 닿으면 녹아 없어질지도 모른다. 실제로 여자가 아이를 안자 아이는 여자 품에서 녹아내린다. 여자는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내려놓는다. 눈아이는 그래도 아이여서 여자를 쳐다본다. 손을 내민다. 여자는 자신의 온기가 무서워서 눈으로 담을 쌓는다. 담을 사이에 두고 여자와 아이는 섞이게 된다. 여자는 아이에게 노래를 불러준다. "엄마가 섞이게... 아이는 스르르 잠이 든다. 여자와 눈아이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될 수 있을까?"

눈아이는 결국 눈-아이이기 때문에 봄이 오면 사라져 버릴 운명이다. 저 너머에서 초록이 다가오자 여자의 마음은 급해진다. 어느 날 전단에서 '언제나 겨울' 무료 체험 이벤트'라는 문구를 발견하고는 금방 돌아온다는 말을 남긴 채 도시로 떠난다. 눈아이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눈아이를 위한 최선을 다하기 위해, 눈아이를 이대로 떠나보낼 수는 없어서, '언제나 겨울'을 구하기 위해. 화려한 도시는 여자에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돈이 있는 자는 필요한 것을 쉽게 구할 수 있었고, 그리하여 최선을 다하기도 어렵지 않았다. 돈이 없는 자는 마음만 급하다. '짜깁깁' 시계 돌아가는 소리는 눈아이의 상실을 경고한다. "더 늦기 전에" 뭐라도 해야 하는 여자는 그렇게 도시의 이면으로, 도시의 일부로, 도시의 파편으로의 삶을 시작한다.

과연 여자는 주어진 시간 내에 '언제나 겨울'을 구해 눈아이를 행복한 일상을 보낼 수 있을까? 여자가 다시 돌아갈 때까지 눈아이는 녹지 않고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을까? 상실하지 않을 수 있을까? 여자는 사체업자의 유혹에 잠시 끌리기도 하고, 우유 배달 같은 일을 하기도 하지만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실은 운명이고, 운명은 피할 수 없다. 극단적인 방법으로 '언제나 겨울'을 얻어 집에 돌아갔을 때, 그곳에는 물웅덩이뿐이었다. '눈'은 사라지고 '물'만 남은 것이다. 여자는 두 손으로 물을 모아 '언제나 겨울' 속에 넣었다. 작은 물

웅덩이는 얼어붙어 여자의 온기를 잠시 붙잡아 두기도 하였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거의 다 풀어버렸지만, 『눈, 물』은 종이를 넘기며 그림을 직접 보아야만 하는 책이다. 그래야만 눈아이의 사랑스러움과 여자의 간절함이 손가락 끝에서 심장까지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심장까지 전달된 슬픔은 곧 타인에 대한 이해가 된다. 그렇기에 『눈, 물』을 읽기 전과 읽은 후의 한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여자와 아이만 있던 공간과, 도시의 공간은 그림에서 검은색 쓰레기 벽으로 완전히 구분되어 있다. 실제 책에서도 두 공간은 다른 질감의 종이를 공간에 따라 각기 써서 종이책이 줄 수 있는 경험의 최대치를 담백한 방식으로 제공한다. 그리고 이 경험은 우리가 잊고 있던 아픔을 깨운다. 뒤표지의 추천사의 말마따나 "어떤 통통한 무더진 상태의 우리를 깨우기 위해 필요하다."(소설가 정세랑)

치명적인 상실을 겪은 당신과 그 상실의 터널을 애써 빠져나오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책을 권한다. 모든 게 잘 될 거라는 파스텔톤의 낙관은 없지만, 3월의 눈처럼 먼지가 쌓인 채 녹아내려가는 가슴을 어루만져 주기에 이러한 색상의 비관이 더 나은 수도 있을 것이다. 그 비관만이 이 미친 세상에서 우리를 미치지 않게 붙잡아 주는 동력이 될지도 과연 모를 일이다. <시인>

의료칼럼

골다공증 약과 치료



최해인 조선대치과병원 구강악안면외과 임상전교수

받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자료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에서 골다공증의 유병률은 여성 35%, 남성이 8%에 달한다. 대략 50세 이상으로 치과를 찾는 환자 열 명 중 네 명 정도는 골다공증을 앓고 있고, 대부분 위에서 설명한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을 투약받고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모집단이 크다 보니 드문 확률로 일어난다는 골다공증 약의 합병증인 약물 관련 골괴사도 실제로 진료실에서는 생각보다 자주 보인다. 약물 관련 골괴사라니, 말도 너무 이상하고 어렵다. 역술한 환자분들이 묻는다. 대체 약물 관련 골괴사가 뭐니까? 세상에 골다공증 약이나 주사를 맞는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앞집 할머니도 뒷집 할머니도 전부 다 맞는데 왜 나만 이런 성가신 병에 걸립니까?

대답할 말을 찾을 수가 없다. 골다공증 치료제 중에는 골흡수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약물인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데노수맙이 치료 치료 후 뼈가 재생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쳐서 약물 관련 골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고 소심하게 설명을 해 드린다. 그러면 할머니 환자분들은 골다공증이 있으신데도 별책 일어나셔서 "이놈의 뭉스 골다공증 약" 하면서 이번엔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 따질 준비를 한다.

정말이지 난감하다. 이틀 데 없다. 한 가지 약으로 골다공증도 치료되고, 치아를 뺀 자리도 깨끗하게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사람 몸은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지지 않은 듯하다.

골다공증이란 말 그대로 '뼈속이 구멍이 많이 생긴다'는 뜻이며, 이로 인해 뼈가 약해지는 질환을 말한다. 이

렇게 뼈가 약해지면? 당연히 부러지기 쉬워진다.

중장년에서 고관절 골절은 사망과 직접 맞닿아 있을 정도로 치명적이다. 통계적으로 고관절 골절이 발생하면 1년 내에 사망할 확률이 17-33%로, 이는 어지간한 암보다도 높다. 비스포스포네이트나 데노수맙 같은 골다공증 치료제는 이처럼 중대한 고관절 골절 위험을 줄이는 약이니, 절대 치과 의사 마음대로 중단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약물 관련 골괴사를 예방할 수 있을까?

약물 관련 골괴사는 4년 이상 골다공증 약을 투약한 경우에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래서 4년 이상 중단한 기간 없이 골다공증 약을 투약한 환자에 한해서 수술 전후에 2-3개월 휴약기를 권유한다. 만약 발치나 임플란트 등 관혈적 치료/치료를 시행한 경우 한 달 이상 수술 부위가 잘 낫지 않는다면 방치하지 말고 바로 치과를 다시 찾는 것이 좋다.

아울러 골다공증 약 투약을 아주 오래했다면 상대적으로 약물 관련 골괴사를 일으킬 가능성이 낮은 부갑상선 호르몬제나 선택적 여성호르몬 수용체 조절제로 골다공증 약물을 변경하는 것이 좋다. 물론 약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증 등의 고려가 필요하므로 담당 내과 전문의 상담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에도 칼슘과 비타민 D를 챙겨 먹고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골밀도 유지에도 도움이 된다.

노인 인구가 나날이 많아지고 골다공증 환자도 늘어나는 세상. 고령 환자를 주로 보는 구강악안면외과의로서 언젠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으면서, 싸고 부작용 하나도 없는 그런 골다공증 약이 개발되길 빌어 본다.

기고

올가을엔 할머니 반열에 올려 주오



이성자 동화작가

할 일이었구나, 새삼 가슴이 뭉클해졌다. 평소 말이 많기로 유명한 박 여사가 유일하게 입을 꼭 다무는 경우는 친구들이 손자손녀 봤다고 한턱내는 날이었다. 심지어 그녀의 남편은 임종 당시 두 아들의 손을 잡고 꼭 결혼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떠나셨다니, 그녀의 착한 가슴은 알고도 남을 것 같다.

길에서 아장아장 걸어가는 아이를 만나면 웃음이 절로 나오고, 배가 볼룩한 임신부를 보면 장하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모두가 나라를 구하는 우리들의 복덩이다. 그런데 통계청이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인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전년 대비 0.03명(-3.4%) 감소했다고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합계 출산율이 한 명에 못 미치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정말 이래도 되는가? 뉴스를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현재는 지자체마다 출산 장려를 위해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을 내놓고 있다. 그러나 그 해결 방법이 정작 결혼을 앞둔 당사자들의 마음을 쉽게 바꿀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아이를 낳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을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여러 정책을 내놓지만, 아직도 주저하는 마음이 피부로 느껴진다. 온 가족들이,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도와서 이제는 안심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도 되겠구나, 하는 마음이 들게 하는 일은 국가가

정말 통 큰 결정을 내렸을 때 가능한 일일 것이다.

젊은이들이여, 모든 어머니의 소원이 할머니 반열에 오르는 것이라는 걸 알았으니, 그대들을 태어나게 하고 지금껏 뒷바라지한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한 번 들어주면 어떨까? 돈 벌어서 또 집 장만해서 할 거라며 내일모레 미루다가는 어머니 돌아가시고 말 텐데. 요즈음 즐겨 부르는 노래 가사를 보면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이지만, 이제 결혼도 필수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다. 세상의 알뜰달록 수많은 꽃은 잠깐 피었다가 시들지만, 복덩이인 아이들의 웃음꽃은 우리 집은 물론 이 나라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보물 중의 보물이다. 그대들만이 피울 수 있는 거룩한 웃음꽃이라는 걸 백만 번 생각하고 생각해 볼 일이다.

그동안 혼자여서 힘들었던 일들이 들어라하면 술술 풀릴지 누가 알겠는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정하게 손잡고 은행으로 가서 진지하게 상담해 보면 결혼할 돈도, 집 장만할 방법도 답이 나오리라 믿는다. 사람마다 타고난 복이 서로 다르니 한 번 믿어볼 만한 일이다. 올가을엔 어머니가 휴대전화에 자식 결혼 사진, 또는 손자 손녀 얼굴 저장해 두고 자랑하며, 호주머니 털어 한턱낼 수 있는 행복한 순간을 안겨 드리지. 카톡! 카톡! 새벽 한시에 울려도 좋고, 새벽 두시에 울려도 좋으니 격정일랑 내려놓고, 하루빨리 어머니가 '할머니 반열에 오르게 하는 기쁨'을 안겨 주기를 간곡히 부탁한다.

社說

고향사랑기부제 만반의 준비로 효과 높여야

인구 급감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자체를 지원하기 위한 '고향 사랑 기부제' 시행이 두달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광주·전남 지자체들은 모금 확대 및 제도 활성화 방안 마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향 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지 이외의 고향 등 다른 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대신 기부자는 세액 공제 혜택과 지역 특산품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지자체는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답례품 사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으니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인 셈이다.

지자체는 별도 기금을 설치해 모인 기부금을 관리·운용하고, 이를 재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등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이 제도는 일본의 고향 납세제를 참고해 논의를 시작한 지 14년 만에 만들어졌다. 일본은

지난 2008년 865억 원이었던 고향 납세 금액이 2020년에는 7조 원을 넘어서 80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

제도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 중 하나는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제공할 수 있는 답례품이다. 각 지역의 농수축산물로 이뤄진 특산품을 포함한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지역 사랑 상품권이나 유명 관광시설 할인권·숙박권은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어 긍정적이다. 일본의 경우 기부자의 70%가 답례품에 매력을 느껴 기부했다는 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관심을 끌 만한 매력적인 답례품 개발이 필수적이다.

각 지자체들은 연내 고향 사랑 기부금 조례를 제정해 기금 관리, 답례품 선정 절차 등을 규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 자체를 모르면 기부 행위가 이뤄질 수 없는 만큼 제도 및 모금 방법에 대한 홍보를 강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 마련은 두 말할 나위 없다.

공공기관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 확대를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 비율이 1%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창업기업의 판로 확보를 위해 2020년 4월 '창업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를 도입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구매 제도는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사회적 약자 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구매하게 함으로써 사업 초기 시장에 안착하도록 돕기 위해 도입됐다. 중증 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대표적으로 공공기관의 의무 구매 비율을 1%로 정하고 있다.

창업기업 제품 우선 구매 제도도 마찬가지 취지로 시행됐는데 공공기관들이 한해 구매하는 총액의 8% 이상을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우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 첫 해인 지난해 전국 공공기관 849곳의 창업기업 제품 구매율은 1.8%에 그쳤다. 문제는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의 구매율이 1.4%로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점이다. 한전을 비롯해 14개 기관은 지난해 물품·용역·공사 등으로 12조 6028억 원을 구매했는데 창업기업으로부터 구매한 금액은 1772억 원에 불과했다.

농촌경제연구원과 전력거래소 등 9개 기관만 의무 구매 비율을 넘겼고 나머지 열 개 기관은 턱없이 모자랐다. 특히 국내 최대 공공기관인 한전은 구매액 8조 6783억 원 가운데 0.5%인 396억 원만 창업기업 제품으로 채웠다.

창업기업 제품이 외면받는 원인은 공공기관의 인식 부족이 가장 크다. 여기에 기업 입장에서 창업기업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까다로운 절차도 부담이다. 정부도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창업기업 제품 구매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나마 마다했지만 중소기업부가 나서 공공기관과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無等鼓

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 2악장을 아느냐고 묻는다면 "모른다"고 답하는 사람이 있을 듯하다. 한데 '그대 오는 하루는 어땠나'로 시작되는 이현우의 노래 '헤어진 다음날'의 도입부에 흐르는 바이올린 선율이 바로 그 곡이라고 말하면 고개를 끄덕이는 이들이 많을 것이다.

6인조 그룹 '신화'의 히트곡인 'T.O.P'에도 익숙한 클래식 음악이 흐른다. 발레 음악으로 유명한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 중 '정경'이다. 백조들의 군무 장면이 떠오르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어우러진 신화의 노래와 춤은 인

블랙핑크와 파가니니

클래식음악이 어렵다고 느껴지는 이들이라면 대중음악에 삽입된 멜로

디를 통해 클래식에 한 걸음 다가간다면 좋을 듯하다. 샘플링된 곡의 '전곡'을 한 번쯤 찾아 들어 보고, 그 작곡가의 또 다른 음악에도 한 번쯤 기울어 보면 어떨까.

'첫 다운'에 삽입된 '라 캄파넬라'는 파가니니의 '바이올린 협주곡 2번' 중 3악장이 원곡이다. 이 곡은 리스트가 편곡한 피아노곡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초절기교 연습곡 3번'으로도 친숙하다. 이 곡을 길라잡이 삼아 파가니니와 리스트의 세계로도 들어가 보자. /김미은 문화부장 mekim@

Table with 4 columns: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 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4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